

일본의 한반도 군용 해저통신망 구축과 ‘제국’ 네트워크*

김 윤 미**

- | | |
|--------------------------|------------------------------|
| I. 머리말 | III. 러일전쟁 시기 군용 해저통신망 구축과 이관 |
| II. 조선 개항 이후 일본의 해저전선 부설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근대 통신망과 교통망은 제국주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육상전선과 해저전선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고, 항로와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대규모로 이동시켰다. 이 두 연결망은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핵심적인 도구였으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제국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조선에도 본국과 관계망을 만들어가려는 제국들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 열강들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고 해도를 제작하여 항로를 만들고, 조선이 개항하자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섰다. 육상전선을 부설하여 해저전선을 가설하여 조선의 통신망을 본국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조선을 차지하려는 열강의 각축전 속에서 조선의 통신망과 교통망을 장악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1905년 관부연락선을 개통하고,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하여 일본과 대륙을 잇는 교통망을 완성했다. 이보다 앞서 1884년 부산-나가사키[長崎]를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일본의 통신망 체계에 조선을 포함시켰다. 해저전선을 통해 일본과 대륙을 연결시킨 일본은 이후 조선 내의 육상전선을 얻기 위한 노골적인 활동을 전개 했다.²⁾ 청나라 역시 자금을 지원하며 조선의 전신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1897~1910년 대한제국 시기는 한국으로 지칭되지만,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 전후 시기를 포함하므로 편의상 조선으로 통칭하였다. 단, 인용문의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2) 청일전쟁 직전 조선과 그 주변을 연결하는 전신선은 한성-의주 西路電信線, 한성-부산 南路電信線, 한성-원산 北路電信線, 부산-長崎 해저전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전신망을 외교적으로 일본에 편입시키고자 했으나 한계에 직면했고, 청일전쟁을 계기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직접 군용전신선을 가설하여 조선의 통신망을 장악하고자 했다. (遞信部,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5, 참고.)

업을 주도하려고 했다. 얼마 동안은 조선정부도 독자적인 전신사업을 전개하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해저통신망에 관한 연구는 체신부에서 통신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전사를 간행했고, 정보통신의 역사를 쉽게 정리한 대중서도 있다.³⁾ 조선의 통신망 구축에 관해서는 몇 편의 연구가 있지만 해저통신망에 대한 연구는 간략히 소개되는 정도이다.⁴⁾ 동해와 독도 관련 연구에서 러일전쟁시기 울릉도와 독도의 해저전선 부설을 다루기도 했다.⁵⁾ 일본에서는 근대 국제통신망이라는 주제로 일찍이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아리야마테루오[有山輝雄]의 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일본의 해저통신망과 통신회사의 탄생, 동아시아전신망과 조선통신 지배를 분석한 이 저저서는 한반도 해역에서 일본, 청, 러시아, 조선의 통신망 가설과 변화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논의한 역작이다.⁶⁾

일본은 조선 개항 이후 영국과 러시아 등 통신강국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다. 일본은 한반도 해역을 거점으로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통신망을 구축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팽창을 도모했다. 그 계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대만간 해저전선을 부설했고,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대륙을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전쟁에서 통신망은 모든 군사행동의 기반이었고, 정보수집과 지휘명령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전쟁을 통해 제국주의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일본은 통신망 부설과 장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이 한반도 해역에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통신을 장악해가는 과정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개항부터 해저통신망 구축이 일단락되는 러일전쟁시기까지로 했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연구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속에서 통신망이라는 또 하나의 스펙트럼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침략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러일전쟁 시기의 해저통신망 부설에 관해서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極秘

3) 逓信部,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5; 진한엠앤비 편집부,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1』, 진한엠앤비, 2012.

4) 이승희, 「청일,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한국 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21, 일본사학회, 2004; 김연희,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한일관계사연구』51, 한국관계사학회, 2015; 박진홍, 「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 전신선 가설」, 『한국근현대사연구』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박진홍, 「1894년 전라도 군용전신선 가설 계획과 일본 해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사학보』76, 고려사학회, 2019.

5) 심현용,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군사전략과 독도의 위상」, 『국가전략』14-2, 세종연구소, 2008; 심현용, 「러일전쟁 최후의 해상전투, '동해해전' 재구성」, 『군사지』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박병섭,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독도연구』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신용하, 「대한제국의 독도영토 수호 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1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6) 有山輝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I:海底ケーブルと通信社の誕生』, 吉川弘文館, 2013; 『情報覇權と帝國日本II:通信技術の拡大と宣伝戦』, 吉川弘文館, 2013; 『情報覇權と帝國日本III: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016.

『明治37.8年海戰史』의 제4부 「防備及ひ運輸通信」를 많이 참고했다.⁷⁾ 이 자료는 해군군령부에서 러일전쟁 직후 1905년 12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911년까지 150권을 공식적인 戰史로 간행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일본 해군이 조선의 해역에서 어떠한 군사적 활동을 했는지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II. 조선 개항 이후 일본의 해저전선 부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간 전신선 가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국제 통신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국, 러시아, 덴마크의 국가 자본으로 설립된 덴마크 국적의 大北電信會社를 통해 1871년 長崎-상해, 長崎-블라디보스톡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대북전신회사는 시베리아 횡단 전선부설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일본-블라디보스톡을 이은 해저전선과 연결을 계획하고 있었다. 일본과 조선 사이의 해저전선 부설도 대북전신회사가 맡았다. 당시 일본은 해저전선을 가설할 자본과 기술이 없었고, 조선은 덴마크와 미수교 상태였으므로 대북전신회사와 해저전선 부설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재가 필요했다.

1883년 3월 조선은 일본과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 일명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체결했다.⁸⁾ 이 조약에는 25년간 기득권을 보장하고, 부산-나가사키선과 경쟁하는 전신선 가설을 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해외 전보선일 경우 부산에 있는 일본 전신국과 연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국내선의 경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해외 전보선이면 반드시 부산의 전신선에 연결되어야 하는 속박 조항이었다.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국제 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 1884년 4월 개통되면서 조선은 국제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으나, 처음부터 조선의 전신 사업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⁹⁾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은 해저전선 보호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예규 제정을 조선정부에 요구했다.¹⁰⁾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한 끝에 5월 4일 「電線罰例」 6개항이 결정되었다.¹¹⁾ 여기에는 해저전

7)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에서 문서번호 C05110029500~C05110203200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1部 戰記, 第2部 戰記, 第3部 戰記, 第4部 防備及ひ運輸通信, 第5部 施設, 第6部 艦船艇
第7部 医務衛生, 第8部 會計經理, 第9部 國際事件, 第10部 付記, 第11部 戰局日誌

8) 1885년 7월 朝清電線條約 체결에 따라 인천-서울-의주간의 전선이 설치되고, 한성과 북경이 전선으로 연결되자, 일본은 조일해저전선조약에 위배된다는 항의를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1885년 12월 21일 朝日海底電線敷設條款續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25년간 독점권 행사는 30년간으로 늘었다.

9) 김연희,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3쪽.

10) 電線罰例은 1884년 3월 14일 체결된 <해저전선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의 내용과 유사하다. 파리협약은 1882년 국제회의의 결과로 17개 조문이 마련되었다. 해저전선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규율 대상과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신창훈, 「동북아시아 해저케이블의 보호·유지 및 수리문제와 관련한 국제법 및 국내법 동향」, 『서울국제법연구』16-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106~107쪽.)

11) 遞信部,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5, 128쪽.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신국의 물건을 損壞하여 통신을 불통하게 한 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禁獄에 처하고, 아울러 동전

선의 훼손에 대한 조항도 있었다. 사실상 배를 정박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업행위 도중에 전선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¹²⁾

일본은 부산과 연결하는 해저전선을 부설한 이후, 다시 부산-인천간 해저전선 가설을 계획했다. 일본 공부성은 1885년 1월 태정대신에게 해저전선 가설에 대한 내용을 상신했다. 조선에 대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연결된 통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도에 가까운 인천까지 전신선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882년 임오군관과 1884년 갑신정변 등 정세가 급변함으로 신속한 통신망이 정치 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으로는 청에서 먼저 해로를 산둥반도에서 인천, 육로로 여순에서 인천이나 한성에 통신망을 가설할 경우를 우려했다. 그리고 인천은 아시아는 물론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니 전선을 부설하고 일본의 대륙진출에 발판으로 삼아야한다는 논지를 폈다.

특히 육로전선이 아닌 해저전선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육상전선은 조선의 제재와 거부가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전선의 보호가 문제라고 했다. 통신선을 가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정세변화를 신속히 알고자 함인데 가장 중요한 매일수록 육로전선은 단선 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다. 육로전선을 가설하면 부산-인천간 1,400여리로 15~16만 달러가 지출되지만, 해저전선으로하면 약 480해리로 45만 달러가 필요했다. 국가의 기간시설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공부성은 비용보다 정치,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외부경과 태정대신 등은 이 의견을 외면했다.¹³⁾

일본은 육상 통신선 가설에 전력을 기울였다.¹⁴⁾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성-인천간 서로전선 불법 장악에 이어 한성-부산간 군용선을 불법으로 가설했다. 헌병을 배치하여 서로전선과 남로전선을 수비하도록 하던 일본은 1896년 1월 31일 조선에 병참선로를 철수하고 수비대를 상비병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서로와 남로 양 전선에서 일반 전신업무를 취급하고, 임시 육군전신대와 임시 헌병대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¹⁵⁾

25냥 이상 250냥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2. 전신국의 물건을 損壞하였으나, 전신 불통에 이르지 않은 자는 一等을 감한다.

3. 전신국의 공무를 방해한 자는 500냥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4. 해저전선 위에서 닻을 내리거나 어업 행위 등의 금칙을 범한 자는 10냥 이상 500냥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5. 고의로 범법하려다 사전에 발각된 자는 250냥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거나 40일 이하의 禁獄에 처한다.

6. 이 電線罰例를 범하여 전신국 경영상의 물건을 훼손한 자는 상기 각 항에 의해 처벌하고, 그 외에 그가 훼손한 만큼의 배상금을 징수한다. 단 과오로 범법한 자는 그 파손 정도에 따라 배상금만 징수한다.

12) 해저전선 보호에 관해서는 1894년 11월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편찬한 『朝鮮水路誌』의 ‘釜山港’편의 ‘해저전선’에 관한 서술이 있다. “일본에서 오는 해저전선은 절영도와 그 서쪽 대륙 사이의 水道를 지나, 초량의 남측에 이른다. 이 전선의 방향은 부표로 표시하고, 그 근방에 닻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시되어 있다.(海軍省 水路部, 『朝鮮水路誌』, 東京製紙分社, 1894, 244쪽.)

13) 遞信部,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5, 128~129쪽.

14) 일본 육군은 청일전쟁시기에 부산-한성-의주-청을 연결하는 군사용 회선을 건설했다. 또 鹿兒島-대만간 해저전선은 청일전쟁 후 군사비로 부설하여 1897년 개통했다. 이 전선은 일본이 최초로 부설한 부설된 최초의 장거리 해저전선이었다.(大野哲弥, 「明治期対外交渉で見る日本の國際通信政策」, 『情報化社会・メディア研究』3, 情報化社会研究会, 2006, 76쪽.)

일본이 조선의 육상, 해상 통신망 장악에 적극 나선 것은 1901년 이었다. 3월 26일 일본 외무대신이 조선의 일본공사에게 <韓露電信線連繼承認의 代價로 無線電信交換所設置의 特權 等 對韓要求訓令 件>을 수신했고, 4월 20일 일본공사관은 <無線電信 및 海陸線架設特權에 관한 條件認定 要請>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다.¹⁶⁾

1. 무선전신교환소 설치권¹⁷⁾
2. 부산-마산간 육상 전신지선 가설 특권
3. 한국연안의 해저전선 포설과 육양할 특권
이외에 한국 내 전선을 외국선에 접속할 경우 먼저 아래의 조건 실행에 동의할 요구함
4. 일본에서 발착 또는 중계하는 모든 통신은 한국 발착 통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선을 통과하도록 할 것
5. 해당 선으로 유럽과 유럽 이외에 이르는 통신을 취급하도록 할 것
6. 한성의 군용선과 한국의 모든 전선을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에 대해 4월 29일 조선 정부는 1, 2, 3항에 대해서는 “국내 전설 부설은 한국 정부의 자유로운 권리이며, 육상·해저와 유선·무선을 막론하고 마땅히 한국 정부가 스스로 부설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양여할 수 없다”라로 회신했다. 4, 5항에 대해서도 후일 萬國電信同盟에 참가하는 것을 기다려 이 동맹의 통칙에 준거하여 살필 것이고, 6항의 내용도 불허한다고 회신했다.

일본 공사관은 11월 11일 <無線電信 等 一部條件의 讓步와 釜仁海底電線 等 要求條件의 承認促求>를 통해 1~3항 특권에 대해 조선정부는 “당초부터 절대로 거절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이라고 명시하고, 4~6항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통례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승낙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12월 14일 <釜仁間 海線權 및 軍用線通聯 拒絕>을 통해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공사는 1902년 1월 21일 <日軍用線問題의 反論 및 海底電線件 再考要請>을 보내 재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계속 오고 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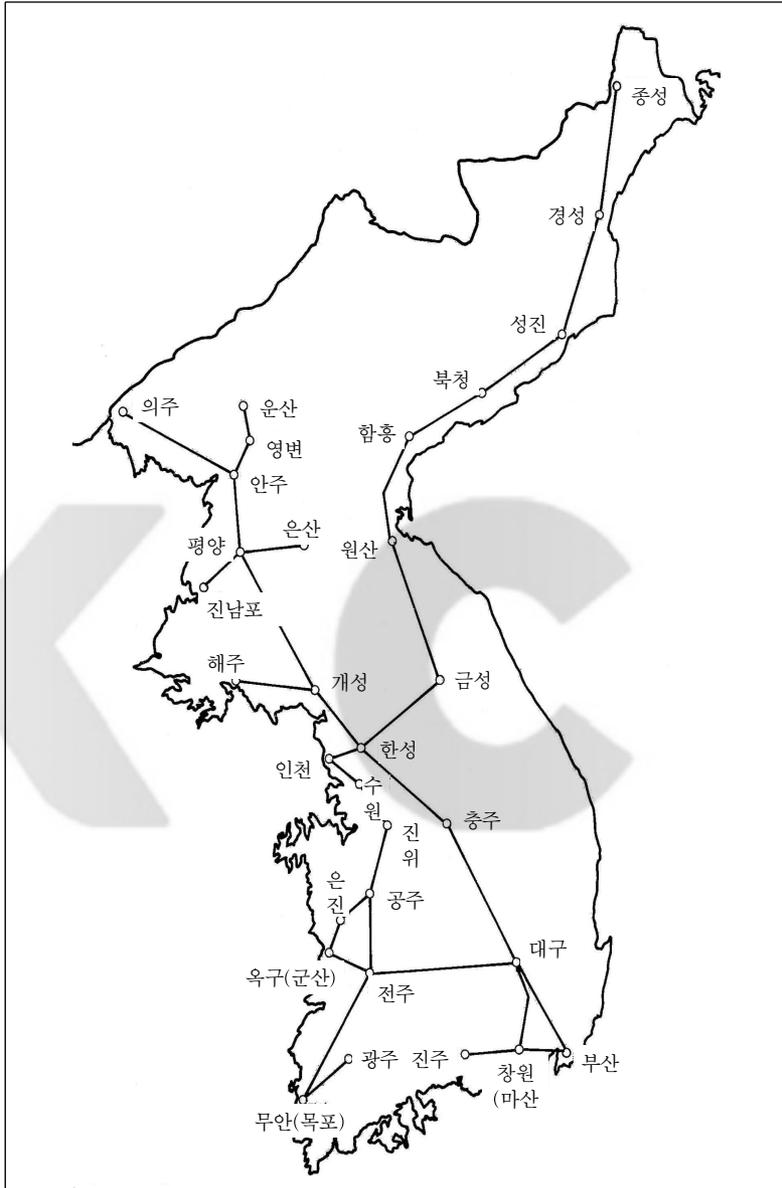
15) 박진홍, 「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 전신선 가설」, 『한국근현대사연구』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참고.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 韓露電信通信通聯」, 『駐韓日本公使館記錄』17에 수록된 통신망 문서 50건 중 관계 문서는 다음과 같다. ③韓露電信線連繼承認의 代價로 無線電信交換所設置의 特權 等 對韓要求訓令 件, ⑤無線電信 및 海陸線架設特權에 관한 條件認定 要請, ⑥無線電信 등에 관한 특권 등의 불능照覆, ⑨無線電信 等 要求條件에 대한 同意再要請, ⑩無線電信 等 一部條件의 讓步와 釜仁海底電線 等 要求條件의 承認促求, ⑪釜仁間 海線權 및 軍用線通聯 拒絕, 日軍用線の 擴張不許와 釜山海底電線の 永保不認照覆, ⑫日軍用線問題의 反論 및 海底電線件 再考要請

17) 무선전신교환소 설치 건은 이른 시기부터 일본이 조선에 요구했다. 1899년 11월 28일 일본 외무대신이 <韓國沿岸에 無線電信交換所 設置特權 取得 件>을 일본공사에게 보내어 조선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연안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부산 영도를 비롯한 19개소에 무선시설 설치권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九. 機密本省來」,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

18) 일본은 부산-인천 전선 부설 추진과 동시에 국제통신망 구축을 진행했다. 1901년 12월 寺内正毅 참모본부장은 ①미국-하와이-괌 전선을 橫濱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미국정부와 교섭 개시, ②大北전신회

<도면 1> 1905년 조선의 육상전선 부설도



출전 : 遞信部,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5, 186쪽.

일본은 러일전쟁 시기에 6개 조항을 군사적 행동으로 밀어붙였다. 1904년 2월 8일 여순항의 러

사소유인 부산-對馬島간 해저전선 매수, ③戰時에 下関-부산 직통 해저전선을 부설하기 위한 건설자재 구입, 이상의 3항을 육군성에 상실했다.(大野哲弥, 「明治期対外交渉で見る日本の国際通信政策」, 『情報化社会・メディア研究』3, 情報化社会研究会, 2006, 76쪽)

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2월 13일 조선의 모든 전신시설을 군용으로 전용하겠다고 통보했고, 2월 23일 체결한 <한일의정서>를 빌미로 모든 통신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5월 말 경 <對韓方針>과 <對韓施設綱領>을¹⁹⁾ 결정하고 통신기관 장악을 계획했다. 다음 해 1905년 2월 22일 일본공사는 조선에 통신기관 위탁을 강력하기 요구하기 시작했고, 조선의 거부에도 결국은 4월 1일 전문 10조로 된 <韓日通信協定>을 체결했다.²⁰⁾ 1905년 현재 조선에 부설된 육상 전선망은 <도면 1>과 같다. 일본은 육상전선과 해저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통신망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부산, 마산을 비롯하여 목포(무안), 군산(옥구), 인천, 해주, 진남포, 신의주, 원산, 함흥, 성진, 청진(경성)까지 내륙과 항구를 육상전선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부산, 목포, 인천, 해주, 원산항은 해저전선을 육양하여 육상전선과 연결했다.

일본은 1906년 1월 10일 통감부 통신관리국을 설치하고, 조선의 통신원을 대신해 전신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신설했다. 통신관리국은 조선 통신사업의 감독, 업무의 시설경영, 개선계획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모두 관장했다. 조선이 운영하던 전신선을 모두 인수한 통신관리국은 설치 후 곧 일본 육군 관할의 전신선을 모두 승계했고, 1907년에는 일본 해군 관할의 군용전선도 귀속시켜 조선의 전신 시설을 모두 통합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²¹⁾

III. 러일전쟁 시기 군용 해저통신망 구축과 이관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2월 8일 밤 여순항을 기습하여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고, 다음날 2월 9일 인천 앞바다의 러시아군함 2척을 포격하여 침몰시켰다. 여순을 봉쇄한 일본군은 5월 요동반도에 상륙했고, 4월말 조선을 거쳐 북상한 육군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동했다. 1905년 1월 1일 여순을 점령했고, 진해만에서 대기 하고 있던 일본 연합함대는 5월 27일 대한해협을 지나가는 러시아함대를 공격해서 러일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해군은 1903년 12월 <1903년도 假根據地防禦計劃>을 결정하고 진해만, 팔구포, 아산, 대동강, 원산, 대련에 임시근거지대를 설정했다. 작전계획에 따르면, 일본 연합함대는 여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제3함대는 '조선해협'(이하 대한해협)을 봉쇄하며, 진해만 등에 임시근거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일본군은 1903년 대한해협을 기점으로 남해와 동해에서 일본 육해군이 합동으로 러일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행한 바 있었다.²²⁾

일본의 군사작전 시작은 전신국 점령이었다. 1904년 2월 3일 일본 해군 제3함대사령관에게 러시아의 거점지역인 마산 전신국을 장악하고, 부산육군수비대와 교섭하여 부산 통신국도 확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제3함대는 대한해협 감시와 진해만 점령을 임무로 했다. 2월 6일 제3함대는 마산포에 정박하고, 육전대를 마산에 상륙시켜 전신국을 점령하고 통신을 차단했다. 다음날 마산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訓令及對韓施設綱領並加藤增雄備聘契約」, 『駐韓日本公使館記錄』22, ①日本政府의 對韓施政方針 訓令 示達 件

20) 진한엠앤비 편집부, 「일본의 전신시설 불법 운용」,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1』, 2012.

21) 김연희,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200쪽.

22) 김윤미,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와 러일전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9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77~82쪽.

에 파견된 부산육군수비대가 전신국을 인수하고 마산과 부산간 통신을 개통했다.²³⁾

일본 해군군령부는 수송통신을 장악하기 위해 나진포, 블라디보스톡, 동외곶(冬外串, 영일만), 마산포, 소근포(所斤浦, 충남 태안), 순위도(巡威島, 황해도 웅진), 소유독각(小乳羶角, 황해도 장산곶)에 전선을 연장하고, 통신소를 설치하며, 사세보, 팔구포, 순위도,威海衛를 잇는 해저전선 부설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일본 각의는 1903년 12월 8일 영국에서 1천해리(약 1.852km) 해저선 구입 비용으로 150만원의 임시비 지출을 결정했다. 1904년 1월 초 가장 먼저 팔구포와 진해만에 해군근거지를 설치하고, 사세보-팔구포 해저전선 부설을 시작했다.²⁴⁾ 부설은 체신성 소속의 전선 부설선 오키나와마루[沖繩丸]를 이용했다.²⁵⁾

沖繩丸은 오키나와[沖繩] 인근의 아미오섬[奄美大島]-도쿠노섬[徳ノ島]-馬關해협의 해저전선 수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2월 30일 요코하마[橫濱]항에 정박해있었다. 1904년 1월 2일 사세보-팔구포 간 해저전선부설 준비에 착수했고, 4일 해군대신은 “九州, 對馬島, 한국 사이에 군용해저선을 부설하여 민첩하게 통신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으로 별지에 부설요령서를 첨부하여” 체신대신에게 부설을 요청했다. <부설요령서>는 다음과 같다.

제1선 : 사세보-팔구포 선

肥前國 사세보 전신국을 기점으로 육로 相ノ浦에서 해저선으로 黑島의 북쪽과 古志岐島 부근을 지나 거문도에 육양하고, 다시 해저선으로 소안도의 남쪽을 지나 팔구포 내 옥도에 도달한다.

제2선 : 嚴原-마산포 선

쓰시마[對馬島] 이즈하라[嚴原]를 기점으로 육로 豆酸에서 해저선으로 거제도과 그 북동쪽에 있는 利湖島 사이 또는 그 부근을 지나 거제도 관포 부근에 육양하고, 광지말 부근에서 다시 해저선으로 칠원반도의 남쪽 적당한 지점에 육양하여 육상전선으로 마산포에 이르게 한다. 제2선의 경우에는 거제도 송진 부근에 중계국을 설치한다.

체신대신은 1월 6일 체신부의 기사에게 명령하여 沖繩丸을 준비하도록 하고, 해군대신은 수로부에 명하여 沖繩丸에 승선하여 관현과 교섭하고, 작업을 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연합함대사령장관은 군함 明石을 함께 출발시키고, 함장에게 “1월 11일 沖繩丸과 함께 출발하고, 팔구포 부근에서 沖繩丸의 해저전선부설작업을 호위할 것, 임무 수행 중 외국선박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沖繩丸의 작업을 살피며, 적절히 정찰과 경계를 행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23)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2章 有線電信」,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700)

24)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1章 通信の概要」,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600)

25) 沖繩丸은 체신성의 소유로 1904년 1월 4일 해군대신이 체신대신과 교섭하여 군용 해저전선부설에 임하도록 했다. 군용 해저전선부설선으로 奉天丸이 있었다. 원래 러시아 동청철도회사 소유의 기선이었지만, 1904년 2월 6일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서 포획하여 7일 사세보군항으로 끌고 왔다. 포획 검사를 시행하던 4월 9일 大阪상선주식회사가 정부 수송 명령을 받고, 군수품 운반 등에 사용하고 10월 10일부터 해저전선 부설선으로 전용했다. (海軍軍令部, 「第3編 特設船舶の艦装/第14章 海底電線沈置船の艦装」,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37100).)

2월 9일 長崎를 출발해서 사세보에 도착한 沖繩丸은 2월 10일 相ノ浦로 이동하여 해저전선 육양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2월 11일 출항했다. 12일 거문도를 지나 소안도 남쪽에 이르렀다. 13일 농무가 심해서 청산도와 소안도 사이에 잠시 정박했다가 다시 이동하여 感水道의 입구 부근에 닻을 내리고, 전선묶음을 풀었다. 깊은 밤 沖繩丸에 승선했던 布目해군소좌는 목포영사를 만나 옥도에 육양할 전선의 보호, 전신주 보관, 순찰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목포 앞 고하도에 해군측량선은 미리 정박해 있었고, 측량용 자재를 비밀리에 숨겨두었다. 沖繩丸은 15일 옥도에 전선을 육양하여 사세보-팔구포전선 부설을 완료하고, 1월 17일 사세보로 귀선한 후 곧바로 長崎로 향했다.

嚴原-마산포 전선부설 준비를 마친 沖繩丸은 1월 25일 門司로 이동하고, 26일 다시 쓰시마 竹敷에 도착했다. 27일 기사와 함께 豆酸만을 시찰하고 전선 육양점을 선정한 후, 수송선 武陽丸에서 송진포-마산 간 육상전선 자재와 기술자, 인부 등을 沖繩丸으로 이동시키고 대기했다. 2월 5일 해군대신은 豆酸-거제도-마산포 전선부설에 착수를 명령했고, 2월 6일 부설을 시작해서 10일 완료했다.²⁶⁾

한편으로 일본군은 1904년 2월 4일 일부 해저전선을 단선하기로 결정했다. ①한성-신의주 육상선, ②旅順, 營口-北京 방면, 奉天과 吉林 등을 지나는 시베리아횡단선을 연결하는 육상선, ③북경-悅克圖에서 시베리아횡단선에 연결되는 육상선, ④旅順-芝罘 해저선이다. 浦鹽線(長崎-블라디보스톡)은 2월 9일 러시아에서 단선했다. 2월 6일 일본 해군연합함대가 佐世保를 출발해서 2월 8일 旅順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함대를 기습 공격한 직후였다.²⁷⁾

2월 5일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이후 해군대신은 체신대신에게 요청하여 팔구포 옥도에 체신성 통신 촉탁 2명을 배치하고, 5일 두 지역의 군용통신을 개시했다. 또 對馬島와 거제도 간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거제도 송진에 체신성 통신촉탁 1명 통신수 2명을 배치하여 10일 군용통신을 개시했다. 각 각 佐世保팔구포전신취급소, 嚴原송진전신취급소라고 칭했다. 31일 팔구포선을 어청도를 지나 황해도 葛川角까지 연장하고, 佐世保어청도전신취급소와 佐世保葛川角전신취급소라고 명명했다. 3월 23일 갈천각에서 백령도까지 해저전선을 연장하고, 27일 백령도에서 長山島까지 연장한 후, 4월 16일 大長山島에 佐世保長島군용전신취급소를 설치했다. 5월 13일 장산도에서 다시 鹽大澳을²⁸⁾ 잇는 해저전선 부설을 마침으로써 사세보-대련선을 완료했다. 8월 17일 해군군용통신소조례 발표에 따라 군용전신취급소는 그 소재 해군구를 관할하는 진수부의 소관으로 했다.²⁹⁾

일본 해군은 사세보-대련을 잇는 해저전선, 나가사키-원산을 잇는 해저전선 공사를 동시에 시행했다.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함대 방어를 임무로 하는 원산방비대와 연결할 동해 북부의 통신

26)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2章 有線電信」,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700).

27)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1章 通信の概要」,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600).

28) 鹽大澳은 요동반도에 위치한 곳으로 5월 5일 일본 제2군이 상륙했다.

29)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5章 海軍軍用通信所」,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10000).

망이었다. 浦鹽線을 육양하여 블라디보스톡-고성 水源端을 잇고, 고성-원산 松田灣-舞水端은 새로운 해저전선을 부설하도록 했다. 3월 5일 奉天丸은 나가사키에서 해저전선 부설에 필요한 전선과 자재를 싣고, 사세보를 경유하여 망루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싣어 7일 진해만에 도착했다. 3월 16일 奉天丸은 원산방비대에서 파견한 함대 2척의 호위를 받으며 17일 죽변만에 도착했다. 浦鹽線 육양지를 조사하고, 18일 출항하여 영흥만에 도착했다. 3월 26일 고성 수원단-원산 송진만 간 해저전선 부설을 완료했다. 이후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4월 7일 나가사키-원산 해저전선 연결을 완료했다.

일본과 청을 잇는 佐世保-大連선, 일본과 조선을 잇는 對馬島-마산포선을 부설하여 황해와 대한해협의 해저 통신망을 구축했다. 대련을 점령한 이후에는 동해 남쪽의 작전 준비를 위해 長崎-울진-울릉도, 對馬島-沖ノ島-見島 해저전선 부설을 추진했다. 동해 북쪽은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함대를 방어하기 위해 원산을 근거지로 長崎-울진-원산선을 가설했다. 러일전쟁 직후 원산-울릉도-松江 해저전선도 부설하여 동해의 통신망을 강화했다.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부설한 해저전선의 부설 현황 전체를 살펴보면 <도면 2>와 같다.³⁰⁾

1904년 4월 12일 체신대신이 육군대신에게 조선의 전신부설에 대해 조회한 문서에 따르면 ‘전선선, 전화선은 군사행동이므로 군용명의로 건설’하도록 했고, 계획도에는 일본-마산, 부산을 연결하고, 일본-목포(팔구포)-어청도-백령도-海洋島(대련)을 연결하고 있다. 이시기까지만해도 동해의 해저통신망 부설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³¹⁾ 이것은 러일전쟁에서 일본 해군의 작전이 여순, 인천의 러시아함대에 집중되어 있었음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블라디보스톡에 순양함 4척으로 편성된 블라디보함대가 있었지만, 우선 작전 대상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 직후 서해의 제해권은 일본이 기선을 잡았지만, 동해는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남하하여 확보했다.

일본 해군이 여순을 공격한 직후 2월 11일 블라디보함대가 쓰가루[津輕]해협 부근에서 일본의 상선 2척을 공격했다. 블라디보함대는 2월 24일 블라디보스톡을 출항해 원산까지 해역을 수색하고 돌아갔고, 4월 24일 제3차 출격에서는 원산항에 정박해 있던 일본 수송선을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제4차 출격은 일본의 보급로 차단을 목적으로 6월 15일 쓰시마 근처의 수송선을 공격했다. 제5차는 6월 31일 원산항을 공격했고, 제6차는 7월 17일 출항하여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나가 도쿄[東京]만까지 출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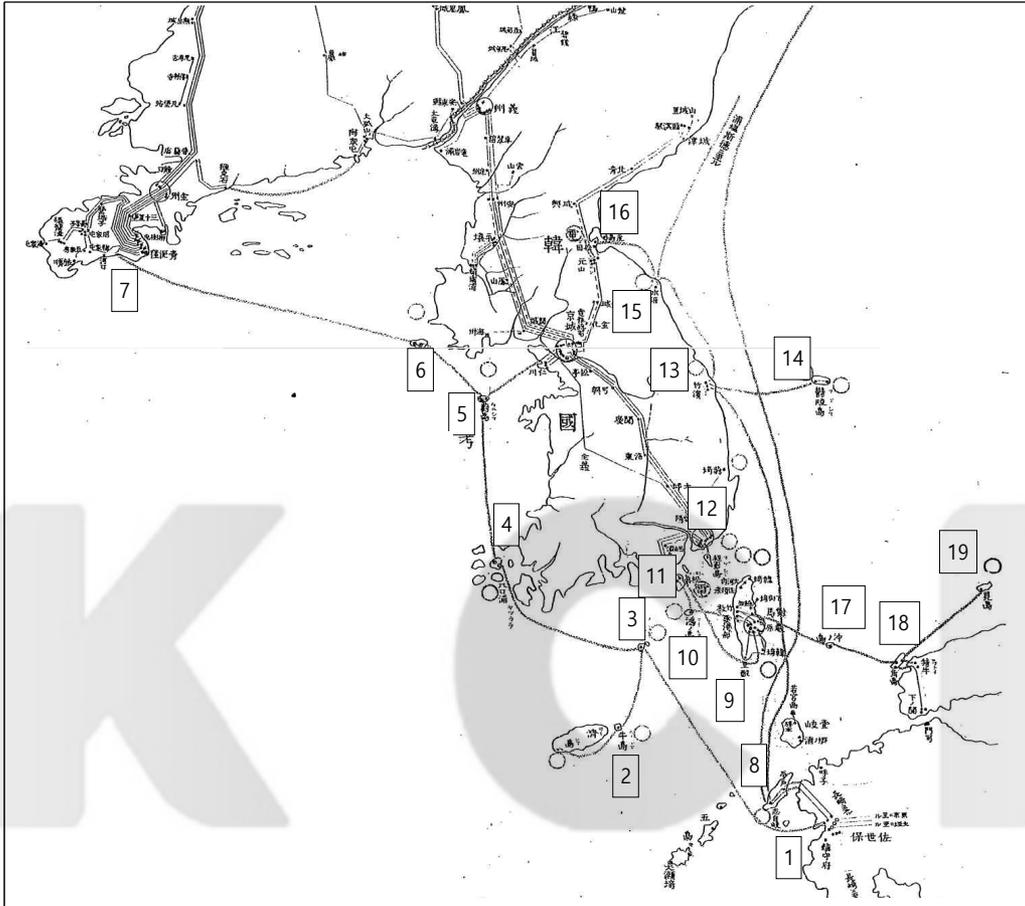
블라디보함대는 7차례에 걸친 출격으로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많은 선박을 격침 혹은 나포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쓰가루해협 근처와 쓰시마해협 근처였다. 3차례의 공격에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던 일본 해군은 일본의 수송로인 쓰시마해협에서 군수송선이 격침당하자 시급히 동해의 감시망을 확충했다. 1904년 5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해저전선을 부설하기로 했고, 7월에는 동해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 거문도, 홍도, 우도, 제주도 등에도 망루와 해저전선 부설을 추가했다.³²⁾

30) 육상통신망은 군용선과 체신선성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만, 아시아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모두 흑백이므로 선의 색을 구분할 수 없다. 추후에 원문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31) 有山輝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Ⅲ : 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016, 209~311쪽.

32) 박병섭,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독도연구』10, 2011, 222~225쪽

<도면 2> 러일전쟁 시기 일본군용 해저전선 부설도



- 1) 사세보, 2) 우도-제주도, 3) 거문도, 4) 팔구포, 5) 울도, 6) 백령도, 7) 대련
- 8) 히라[平戶], 9) 쓰시마[對馬島], 10) 홍도, 11) 거제도 송진, 12) 부산, 13) 울진 죽빈, 14) 울릉도
- 15) 고성 수원, 16) 원산, 17) 오키노시마[沖ノ島], 18) 가도시마[角島], 19) 미시마[見島]

출전 :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2章 有線電信』,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700).

일본해군은 러일전쟁시기 블라디보함대가 동해에 여러차례 출격하자 가까운 시일에 블라디보함대가 남하해서 대한해협과 쓰시마해협의 보급로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04년 5월 30일 ①울릉도에 무선전신소 1개소, ②영일만 冬外串에 가설 망루 1개소, ③제1차로 울릉도-독도, 제2차로 독도-오키노시마(高崎山)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④독도에 망루 설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블라디보함대가 예상했던 일본과 대륙을 잇는 수송선을 공격하자 이전 계획을 수정하여 7월 5일 울릉도와 독도뿐 아니라 동해안 전체에 망루를 설치하고 통신선을 가설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망루 설치 : 조선해협 鴻島, 절영도(부산 전신국), 울릉도 서북부 및 동남부에 각 1개소, 미시마(見島) 북부
- ②해저전선 설치 : 竹敷-鴻島-松眞, 다케시키 오키노시마-가도시마(角島)-미시마, 죽빈-울릉도(울릉도 망루는 육선으로 서로 연락할 것)
- ③오키노시마 망루에서 전신 사무 개시
- ④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각 등대 소재지에 해군 감시병을 배치

1904년 6월 일본 해군은 쓰시마-울진-울릉도의 해저전선 작업을 시작했다. 대북전신회사 소유의 鹽浦線을 단선하고, 군사거점 지역에서 양육하여 군용전신취급소와 망루를 설치했다. 일본 해군은 鹽浦線을 히라도[平戸]에 양육하고, 다음으로 울진 죽변에 양육하여 울릉도 송도까지 연결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6월 중순 해군대신은 鹽浦線을 平戸방면에서 단선하고 하나는 志自岐灣에서 육양하여 일본 국내용으로 사세보우편국에 접속시키고, 하나는 沖繩丸을 통해 나가사키우편국으로 접속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월 24일 沖繩丸은 나가사키항을 출발해 사세보를 거쳐 29일 히라도 志自岐灣에 도착했다. 육양지점을 설정하고, 鹽浦線을 찾는데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육양작업을 해서 7월 9일 사세보우편국에 접속시켰다.

鹽浦線의 울진 인양과 울릉도 해저전선 가설은 6월 18일 鹽浦線을 울진 죽변방면에서 단선하여 그 선을 죽변에 인양하고, 6월 21일 죽변에 망루 가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체신대신은 6월 29일 沖繩丸에 가설작업을 명령했다. 7월 1일 해군대신은 제2함대사령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8일 훈령을 내렸다. 부설에 앞서 여순방면과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군 정황을 살펴 움직임이 없음을 확인하도록 했다. 沖繩丸이 죽변 부근에서 鹽浦線 수색하는 3일, 죽변만에서 鹽浦線을 육양하는 2일, 죽변-송도 간 해저전선 부설과 송도 인양에 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엄호와 통신연락을 할 두 척의 함대를 지원 했다.

7월 10일 沖繩丸이 쓰시마 竹敷를 출항해서 죽변만 인근에서 鹽浦線 수색을 시작했다. 15일 죽변만에서 양육공사를 완료한 沖繩丸은 16일 죽변과 울릉도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저전선을 신고 출발했다. 풍파가 심해 울릉도 인근에 전선을 투하하고, 부표를 세워둔 후에 쓰시마로 귀항했다. 沖繩丸이 울릉도에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4일이었다. 沖繩丸이 죽변-송도 간 전선부설 작업을 완료 한 직후,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함선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서둘러 쓰시마로 모두 철수했다. 28일 쓰시마에서 기술자들이 송도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완료하면서 나가사키-울진-송도간 해저전선 부설은 완료되었다.³³⁾

12월 5일 사세보-팔구포선을 거문도에서 인양하여 우도와 제주도 서쪽을 연결했다. 이로써 러일전쟁 시기 한반도 해역의 해저전선 부설을 일단락 했다. 해저전선을 부설한 곳에는 군용전신취급소를 설치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일본 해군은 러일전쟁이 끝나자 1906년 7월 13일까지 군용전신취급소를 대부분 폐지했고, 일부는 통감부나 육군으로 인도했다. 거제도 송진포, 거문도, 원산 송전, 울릉도 송도 북의 군용전신 취급소는 통감부로 인도했다. 인천 용진의 울도는 육군에 인도했다. 현황은 <표 1>과 같다.

33)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2章 有線電信』,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700).

<표 1> 러일전쟁 전후 망루와 군용전신 취급소 설치현황

명	소재	망루			군용통신소	
		함선과 통신 할 설비	기공일	개시일	개시일	폐지일
송진	거제도				1904.2.10.	1906.7.13.
팔포	팔구포	手旗,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4.2.15.	1904.9.20.	1904.2.10.	1906.4.12.
청도	군산 어청도				1904.3.15.	1904.4.16.
조도	황해도 계도				1904.3.15.	1904.11.15.
백도	백령도	기상관측이행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4.3.17.	1904.4.11.	1904.4.8.	1906.4.12.
죽변	울진 죽변만	완비 기상관측 이행	1904.6.27.	1904.8.10.	1904.9.15.	1905.10.19.
울도	웅진 울도	완비	1904.6.27.	1904.10.15.	1904.11.1	1905.12.4.
원산진	원산	수기 발광신호	1904.7.5.	1904.8.3.	1905.4.3.	1906.7.13.
영도	부산 절영도	완비	1904.7.17.	1904.8.2.	1905.5.15.	1905.10.19.
홍도		완비	1904.7.17.	1904.10.7.	1904.12.2.	1905.10.19.
송도東	울릉도 동남단	완비	1904.8.3.	1904.9.2	1904.9.26.	1905.10.5.
송도西	울릉도 동남단	완비 기상관측 이행	1904.8.3.	1904.9.2.		
울기	울산	완비	1904.8.27.	1904.9.11.	1904.10.27.	1905.10.19.
문도	거문도	완비 기상관측 이행	1904.8.27.	1904.9.30.	1905.1.1.	1906.7.13.
우도	제주도 동안	완비	1904.8.27.	1904.10.10.	1905.1.1.	1905.10.19.
제도	제주도 서안	기상관측 이행 무선전신 가능	1904.8.27.	1904.9.30.	1905.1.1.	1905.10.19.
다태	거제도 동안	手旗,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4.9.5.	1904.11.29		
수원	고성 수원단	완비	1905.3.7.	1905.4.3.	1905.4.7.	1905.10.19.
호도	영흥만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5.3.28.	1905.5.26.	1905.4.3.	1905.10.19.
무기	무수단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5.6.7.	1905.7.20.	1905.7.20.	1905.10.19.
송도北	울릉도	기상관측이행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5.7.14.	1905.8.16.	1905.8.16.	1906.7.13.
동기	영일 冬外串	완비 무선전신 가능	1905.7.14.	1905.8.21.		

출전 :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4章 望楼」, 「極秘 明治37.8年海戰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900) ; 「第3編 通信/第5章 海軍軍用通信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10000).

망루 건설은 1904년 2월 팔구포에 가장 먼저 착수되고, 1905년 7월 울릉도와 영일만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다. 망루에서 적함선을 발견하면 군용전신으로 상급기관에 즉시 알려야하므로, 망루에는 전신국과 연락할 전화나 전신이 설치되어 있었고, 함선과 통신 할 설비도 갖추어져 있었다. 무선전신이 가능한 곳도 있었고, 기상관측을 이행하는 곳도 있었다. 공식적인 기상관측소는 아니지만 백령도,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 망루는 기상관측도 이행했다.³⁴⁾ 무선전신은 팔구포, 백령도, 제주도, 거제도, 영흥, 무수단, 울릉도, 영일만 망루에 설치되었다. 무선전신은 1895년 실용화 시험에 성공하고, 1901년 대서양 유럽과 미국 횡단 무선이 가능해졌다. 일본 해군성은 1901년 무선전신기를 도입했고, 1903년 해군함정에 무선장비를 탑재하고 러일전쟁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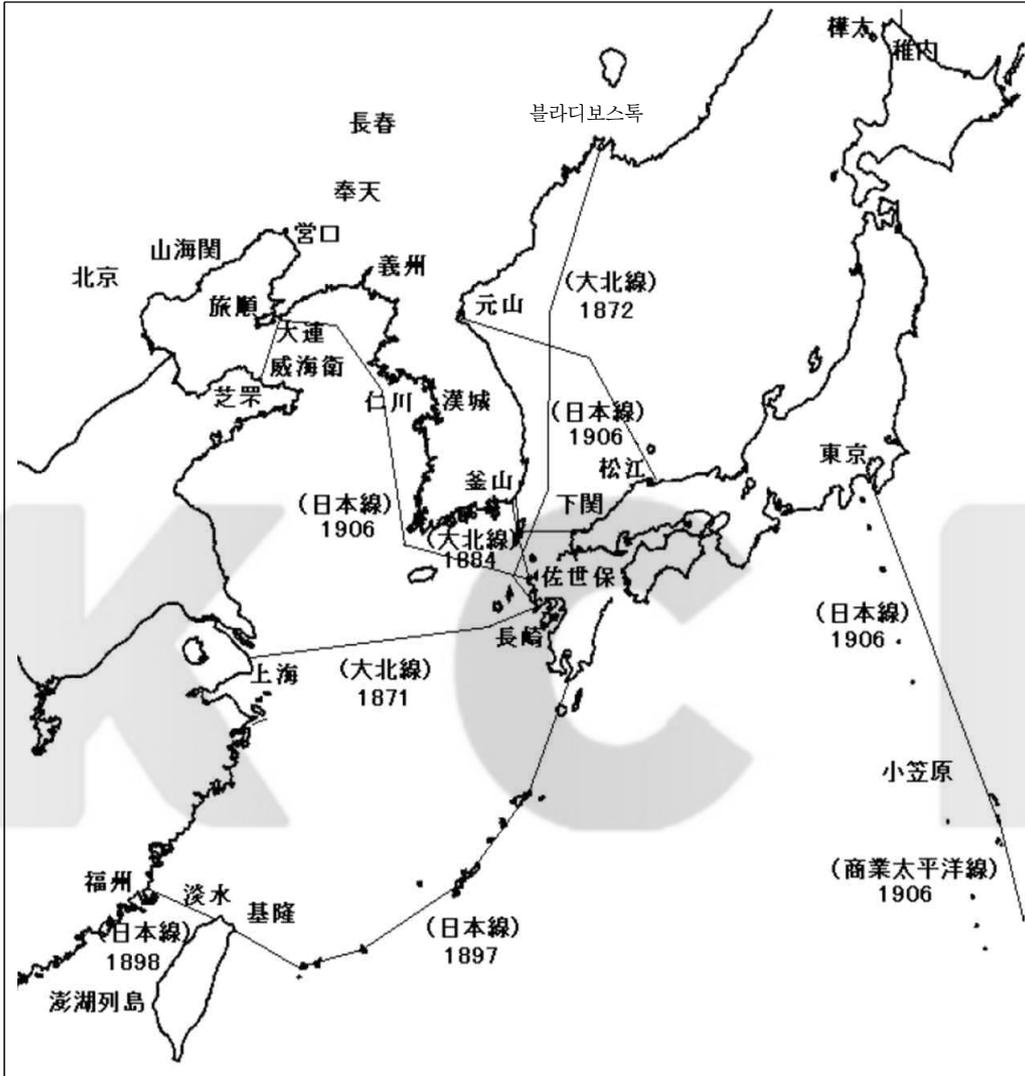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은 佐世保-大連선 등 군용 해저통신망을 민간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대북전신회사는 1906년 5월 협약 위반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907년 대북전신회사와 교섭을 시작했고, 1910년 11월 1일 대북전신회사의 소유인 對馬-부산간 해저전선을 매수했다. 1906년 현재 일본과 연결된 해저통신망은 <도면 3>과 같다.

한편으로는 대북전신회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1906년 8월 상업태평양해저전신회사와 교섭하여 東京-小笠原선을 괄-하와이를 경유해서 미국과 바로 연결된 통신망에 접속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미 1873년 東京-橫濱-長崎선, 1874년 東京-靑森선을 부설하여 東京에서 長崎와 靑森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913년 중국으로부터 長崎-상해선 부설권을 얻었고, 1915년 1월 통신을 개통하여 상해에 부설되었던 영국 해저통신망에도 연결했다. 이로써 東京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제국’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했다.³⁵⁾

34) 조선에는 1880년대부터 부산, 인천과 같은 개항지에 조선 정부, 일본 거류민, 러시아 공사 등이 운영한 기상 관측소가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이 경영하던 해관관측소를 비롯해서 부산 우편전신국, 일본영사관에서도 기상관측을 했지만 거의 맞지 않았다. 이러한 관측체제의 상황이 바뀐 것은 러일전쟁 시기부터였다. 일본 정부는 주 전장이었던 한반도 주변 해역 및 관동주의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육해군에 제공하기 위해 군사거점지역에 임시관측소를 설치했다. 부산에 제1임시관측소, 목포에 제2임시관측소, 인천에 제3임시관측소, 원산에 제5임시관측소, 용암포에 제4임시관측소를 잇따라 개설했다. 9월에는 관동주 大連 과 營口에 각각 제6, 제7임시관측소를 설치했다. 1905년에는 관동주 奉天에 제8임시관측소, 함경북도 성진에 제9임시관측소, 전쟁 직후인 9월 가라후토 코르사코프에 제10임시관측소를 설치했다. 임시관측소는 전략적 요지나 항구, 이미 전신선이 부설된 곳이었고, 관측데이터가 육해군과 대본영이 설치된 히로시마로 모아졌다. (미야가와 타쿠야, 『제국 일본의 기상관측망 구축-청일-러일전쟁과 식민지 기상사업, 1894~1930』, 『역사와 문화』25, 문화사학회, 2013. 60~64쪽.)

35) 大北전신회사는 1871년 일본이 최초 국제통신인 長崎-上海 해저전선을 부설한 이래, 1882년 長崎-부산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이후 이 회사는 30여년을 더 일본과 아시아를 잇는 해저전선 부설과 운용을 독점했다. 1882년 일본 국제통신 독점권을 얻은 대북전신회사는 그 후 大東전신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영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북전신회사는 1904년 6월 東電전신회사, 獨蘭전신회사, 상업태평양해저전신회사, 청 정부, 러시아 정부와 비밀협력 체계를 형성하여 통신량과 통신요금을 조정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회선을 사용하는데 대북전신회사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했다.(大野哲弥, 『明治期對外交渉で見る日本の國際通信政策』, 『情報化社会・メディア研究』3, 情報化社会研究会, 2006, 73~82쪽.)

<도면 3> 1906년 일본의 해저통신망 부설도



출전 : 大野哲弥, 「明治期対外交渉で見る日本の国際通信政策」, 『情報化社会・メディア研究』 3, 2006, 75쪽. <그림 1>

IV. 맺음말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간 전신선 가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1883년 3월 조선 정부는 일본과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을 체결하고 부산-나가사키선을 부설했다. 이후, 일본은 부산-인천간 해저전선 가설도 조선 정부에 요구했다. 조선 정부에서 거절하자,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성-인천간 서로전선 불법 장악에 이어 한성-부산간 군용선을 불법으로 가설했다. 일본이 다시 한반도의 육상, 해상 통신망 구축을 조선에 강력히 요구한 것은 1901

년 이었다. 일본 정부는 무선전신교환소 설치권, 연안의 해저전선 포설과 육양권 등을 요구했고,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는 형태가 거듭되었다.

일본의 해저전선 부설 요구는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1904년 2월 8일 여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2월 13일 조선의 모든 전신시설을 군용으로 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의 군사작전은 전신국 점령에서 출발했다. 2월 6일과 7일 일본 해군 제3함대는 러시아의 거점지역인 마산의 전신국을 점령하고, 부산육군수비대와 교섭하여 부산 통신국을 점탈했다.

곧이어 일본은 해저전선 부설을 시작했다. 1903년 12월 8일 일본 각의는 영국 해저전선 구입비지출을 결정했고, 일본 해군은 가장 먼저 사세보-팔구포 해저전선 부설을 시작했다. 5월 13일 일본 해군의 근거지인 사세보-진해-팔구포-대련을 잇는 해저통신망을 완료했다. 대련을 점령한 이후에는 동해 남쪽의 작전 준비를 위해 長崎-울진-울릉도, 對馬島-沖ノ島-見島 해저전선 부설을 추진했다. 동해 북쪽은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함대를 방어하기 위해 원산을 근거지로 長崎-울진-원산선을 가설했다. 해저전선을 부설한 곳에는 군용전신취급소를 설치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했고, 망루를 세워 적의 감시와 기상관측도 이행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 해군의 작전은 여순, 인천의 러시아함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에 순양함 4척으로 편성된 블라디보함대가 있었지만, 우선 작전 대상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 직후 서해의 제해권은 일본이 기선을 잡았지만, 동해는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남하하여 확보했다. 일본해군은 일본의 수송로인 쓰시마해협에서 군수송선이 격침당하자 서둘러 동해의 감시망을 확충했다. 1904년 6월 일본 해군은 쓰시마-울진-울릉도 해저전선 작업을 시작으로 울산, 거문도, 홍도 우도, 제주도 등에도 망루를 세우고 해저전선망을 구축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일전쟁 시기에는 육상통신망 구축에 전력했다면, 러일전쟁 시기에는 그 동안 조선정부에서 거부했던 해저통신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동북아 해역의 일본군용 해저통신망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체신성 등의 민간에 이관되었고, 일본이 제국주의를 확대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투고일 : 11월 13일 심사일 : 11월 27일 게재확정일 : 12월 1일

주제어 : 해저케이블, 러일전쟁, 청일전쟁, 동해, 일본군, 교통망, 해군

참고문헌

- 海軍省 水路部, 『朝鮮水路誌』, 東京製紙分社, 1894.
-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1章 通信の大要」, 『極秘 明治37.8年海戦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600).
-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2章 有線電信」, 『極秘 明治37.8年海戦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09700).
- 海軍軍令部, 「第3編 通信/第5章 海軍軍用通信所」, 『極秘 明治37.8年海戦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10000).
- 海軍軍令部, 「第3編 特設船舶の艤装/第14章 海底電線沈置船の艤装」, 『極秘 明治37.8年海戦史 第4部 防備及び運輸通信 卷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511013710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九. 機密本省來」, 『駐韓日本公使館記録』1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 韓露電信通信通聯」, 『駐韓日本公使館記録』17.
- 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한국관계사학회, 2015.
- 김연희,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윤미,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와 러일전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9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 미야가와 타쿠야, 「제국 일본의 기상관측망 구축-청일·러일전쟁과 식민지 기상사업, 1894~1930」, 『역사와 문화』25, 문화사학회, 2013.
- 宮川卓也, 「일본 제국의 기상관측망 구축과 '일본 기상학'의 형성, 1868-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병섭,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독도연구』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 박진홍, 「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 전신선 가설」, 『한국근현대사연구』8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 박진홍, 「1894년 전라도 군용전신선 가설 계획과 일본 해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사학보』76, 고려사학회, 2019.
- 신용하, 「대한제국의 독도영토 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1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 신창훈, 「동북아시아 해저케이블의 보호·유지 및 수리문제와 관련한 국제법 및 국내법 동향」, 『서울국제법연구』16-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 심현용,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군사전략과 독도의 위상」, 『국가전략』14-2, 세종연구소, 2008.
- 심현용, 「러일전쟁 최후의 해상전투, '동해해전' 재구성」, 『군사지』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大野哲弥, 「明治期対外交渉で見る日本の国際通信政策」, 『情報化社会・メディア研究』 3, 情報化社会研究会, 2006.
- 이승희, 「청일,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한국 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21, 일본사학회, 2004.
- 진한엠앤비 편집부,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1』, 진한엠앤비, 2012.
- 逡信部,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5.
- 有山輝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Ⅲ: 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016.

국문초록

일본의 한반도 군용 해저통신망 구축과 ‘제국’ 네트워크

김 윤 미

근대 통신망과 교통망은 제국주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육상전선과 해저전선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항로와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대규모로 이동시켰다. 이 두 연결망은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핵심적인 도구였으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제국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이 한반도 해역에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통신을 장악해가는 과정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시기는 개항부터 해저통신망 구축이 일단락되는 러일전쟁시기까지로 했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연구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속에서 통신망이라는 또 하나의 스펙트럼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침략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은 조선 개항 이후 영국과 러시아 등 통신강국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다. 일본은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통신망을 조선 해역을 거점으로 구축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팽창을 도모했다. 그 계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일본과 대만간 해저전선을 부설했고,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대륙을 잇는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일본은 청일전쟁 시기에 육상통신망 구축에 전력했다면, 러일전쟁 시기에는 그 동안 조선정부에서 거부했던 해저통신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동북아 해역의 일본 군용 해저통신망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체신성 등의 민간에 이관되었고, 일본이 제국주의를 확대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Abstract

Japan's Establishment of Military Purpose Submarine Communication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erial' Network

Kim, Yoon Mi

Modern communications and traffic networks were among the decisive factors that enabled the expansion of imperialism. Land and submarine cables delivered information quickly, while the sea lanes and railways moved people and supplies on a large scale. These two connection networks were key tools for the empire to administer colony, and exceeded the limits of space to create imperial network.

Based on precedent research,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d the process and present condition of Japan constructing submarine cable on the Korean Peninsula waters and commanding communication facilities.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opening a port to the Russo-Japanese War period, where establishing submarine communication network was completed. The study of Japan's invasion of Joseon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ways, from political and diplomatic aspects, economic to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mong these, this paper will determine Japan's military aggression process through another spectrum of communication network.

After the opening of Joseon port, Japan has tried to construct its own network, free fr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s power nations such as Britain and Russia. Japan established a submarine communication networks linking the continent with the base for Joseon waters, and planned to build imperial communication network for expansion. The indicator was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Upon Sino-Japanese War, Japan established submarine cables linking Japan and Taiwan, and upon Russo-Japanese War, it established submarine cables linking Japan and continent. During Sino-Japanese War, Japan exerted all its power building l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n during Russo-Japanese War, Japan concentrated in building submarine communication networks that Joseon Government had been rejecting. After the end of the war, submarine communication networks for Japanese militar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ere transferred to private sectors such as Ministry of Communications, which became the foundation to expand Japan's imperialism.

Key word: Submarine Cable, Russo-Japanese War, Sino-Japanese War, East Sea, Japanese military, Transportation Network, Navy